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김 지사 시군 방문 마무리... “도정에 반영”

업무보고 등 기존 방식과 다른 의회·기자실 방문,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 현장 소통
도민과 소통, 120건 현장 건의사항 청취... 완주군민과의 대화 무산은 아쉬운 점으로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5월 2일 익산시부터 진행되었던 김관영 도지사의 민생투어가 지난달 26일 완주군을 끝으로 80여 일 간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시군 방문은 민생 중심의 도정 운영을 천명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내 14개 시·군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고스란히 묻어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민생행보로서, 전통시장 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시간이 마련되어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김 지사가 오·만찬 간담에 참석한 사회복지계장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공

유함으로써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올해 시군 방문은 시군별 업무보고 청취를 과감히 생략하고, 시군 의회 및 기자실 방문 일정을 추가했으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오·만찬 간담을 하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의 의회 방문 및 주재기자 간담 등을 추가한 것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기 위한 행보로 색다르고 신선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지난해 청원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 특강을 올리는 도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뤄내겠다는 도전정성의

자세를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백년대계와 도·시군별 비전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자치도와 시군이 함께 성공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과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었던 민생 현장 방문을, 올리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현장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방문해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으로써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돋보였다.

도에 따르면 시군 방문 기간 동안 6,100여 명의 도민들을 만나 총 120건의 다양한 현장 건의가 제시됐으며, 이 중 ‘전주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지원’ 등 41건을 현장 종결처리하고, 이 외 79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건의의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계획 수립에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을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라며 “도민의 진솔한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이슈로 실질적으로 주민과 많은 대화가 필요했던 완주군 방문에서, 통합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되었던 점은 이번 시군 방문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자치도 행정부지사 폭염 피해 최소화 ‘구슬땀’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주에 위치한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쉼터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마천경로당을 찾아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불편 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최 부지사는 “무더위쉼터의 적정 실내온도(26~28℃) 유지와 상시 개방을 통해 도민들이 폭염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근의 폭염 저감 시설인 스마트 쉼터의 운영 및 관리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스마트 쉼터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도민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 서비스 등을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주에 위치한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쉼터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제공하는 버스 승강장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여름철 폭염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기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최 행정부지사는 “도민들

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낮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폭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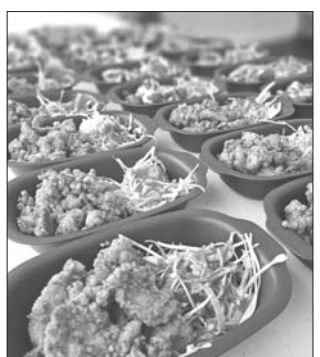
/이만호 기자

전주 가맥축제, 다회용기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현 ‘한발짝’

다회용 컵 7만 · 다회용기 4만 개 보급... 11만개 1회용품 줄여
김제 지평선 축제 등... 하반기 도내 축제에 다회용기 보급 추진

전주 가맥축제가 올해 다회용기를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이번 축제는 전북자치도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성공적으로 거듭났다. 2024년 전주 가맥축제는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가게 따주(가맥)와 인주를 주제로 한 전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약 12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당일 생산된 신선한 따주와 29개의 유명 가맥업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공연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올해 축제의 큰 변화는 다회용기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지속협의회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다회용 컵 7만 개와 다회용기 4만 개를 보급하여, 총 11만 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은 온실가스 약 3.63톤 CO2-eq를 감축하고 나무 551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다. 또한, 축제 주최 측은 ‘성숙하고 깨끗한 축제 문화 조성’을 위해 ‘내 자리는 내가 치운다’라는 포어를 각 자리마다 게시하였으며, 방문객들이 음식물을 먹은 뒤 스스로 다회용기를 반납하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부스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축제장 곳곳에 다회용기 사용 방법과 중요성을 알리는 안내판과 배너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전주 가맥축제는 10만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축제로,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도입한 첫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전주 가맥축제는 2022년부터 텀블러를 소지하지 않은 방문객에게 1,000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텀블러를 지참하는 방문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노력을 이어받아, 오는 8월 9일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10월 김제 지평선 축제 등 하반기 도내 18개 축제에 다회용기 보급 및 세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약 150만 개의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의 대표 축제인 전주 가맥축제가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며, “전북자치도 모든 축제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 내 소아 의료 전달체계 강화

전북자치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통합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전북 다슬이동병원을 포함한 총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다슬이동병원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타 병·의원 7개소, 배후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약국 1개소와 협력

하여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진료 연계가 가능한 연리망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개별 의료기관 대응만으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신속한 소아 진료체

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의 돌림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아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 소아 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 선정

김대혁 - 전북 과학기술연구와 지역 경제·산업 발전 기여
권기현 - 식품관련 다수 연구수행 · 도내 기업에 기술 이전
조민호 -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 제조 등 연구추진 공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혁, 권기현, 조민호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도내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상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5월 후보자 추천 공고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총 8명의 후보자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공적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실사 및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3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대혁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센터장은 2017년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개소 이후 센터장으로서 미생물 관련 국가사업 57건 수행, 특허 출원 및 등록 52건, 해외 학회지 논문 발표 116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도내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권기현 한국식품연구원 사업단장은 식품제조공정 및 시스템 분야에서 100여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도내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100여 건, 국내외 논문 발표 50건 등의 연구 성과도 뛰어나며, 도내 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앞장서 왔다.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장은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을 제조·실증과 해양무인시스템 시험 평가 기술 개발연구를 통해 조선산업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디지털·그린 융복합화 기술고도화에 기여하였으며, 논문 발표 5건, 특허 출원 및 등록 12건 등을 통해 도내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기술경쟁력 확보에 공헌했다.

수상자들은 오는 9월 6일 열리는 ‘제18회 과학축전 개막식’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받을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의 과학기술 분야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되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박물관 개관 1주년 맞이 특별전

14일부터 약 3달 동안 ‘멋진 신세계 : 문학, 간척과 삶’ 특별전
지난 1년간 15만명 다녀가... 복합문화공간 · 교육기관 역할 수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8월 7일 새만금을 대표하는 문화·관광·교육시설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이 정식 개관(지난해 8월 7일)한지 1주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2023년 7월 20일 대국민 사전개방 이후 8월 7일 정식 개관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새만금박물관)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호응을 얻어 1년간 1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새만금 박물관 측은 밝혔다.

객들도 재방문하여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SNS 이벤트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항술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거나 읽어 보았던 문학작품 속에서, 미처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간척이야기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만금 박물관은 관람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 지난 1년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험행사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을 찾아준 많은 관람객들 덕분에 새만금 박물관이 문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만금의 대표 시설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1주년을 넘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박물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진행한 감진년 새해맞이 ‘청룡역사 만들기’, ‘봄맞이 ‘샤스타’ 이지 키링 만들기 등의 행사는 어린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전국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편, 박물관을 돌아본 한 도민은 “간척과 관련한 전시물이 극히 일부이고, 외국 간척과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전시하였으며, 지어진 건물에 비하여 전시된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인 전시품 수집을 통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전시품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에 있는 국립 산악박물관의 경우 자료 수집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여 너무 단일한 박물관 운영이 아닌가 하며 우려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만호 기자